

(問) 再保險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答) 再保險이란 글자 그대로 保險의 保險이라고 말할수 있다.

顧客과 保險會社間에 締結된 保險契約는 顧客이 保險會社에 保險料를 支拂하므로써 偶然한 事故로 입은 經濟的損失을 填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顧客과 保險會社의 關係는 元受保險會社(顧客으로부터 契約를 引受한 保險會社)와 再保險會社(元受保險會社로부터 再保險을 引受한 保險會社)의 關係와 根本적으로 同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元受保險會社가 引受한 契約에 對하여 發生할 損害의 경우 負擔하지 아니하는 部分을 再保險會社에 保險을 附保(再保險)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

※ 再保險의 役割

어떤 元受保險會社에서 引受한 契約이 例를 들어 保險金額이 大同小異한 住宅의 火災保險뿐이라고 할 때에 1回の 火災에 依하여 複數의 契約物件이 同時에 罹災입을 없거나 없다면 適正한 料率水準이 維持되는 限 이 保險會社의 契約集團은 매우 安定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保險會社의 規模가 클 경우에는 반듯이 再保險할 必要性은 없게 된다. 그러나 이 契約集團의 새로운 保險金額이 數億圓의 工場의 火災保險을 追加하여 引受했다면 위에서 말한 安定性은 喪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元受保險會社는 工場契約의 大部分을 再保險하므로써 住宅뿐인 火災保險을 引受할 때와 똑같이 安定된 契約集

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簡單히 말하여 再保險은 保險會社끼리 危險의 分散으로 引受한 契約集團會社의 平均化를 갖어오는 手段이라고 말할수 있다. 保險會社가 實際로 引受할 保險種目危險의 內容 또는 保險金額은 千差萬別이기 때문에 이들을 一定한 基準에 依據 再保險하여 最終적으로 그 保有額을 安定시키는 것은 保險事業의 經營上大端히 重要的 것이다.

最近 '절보젯트'나 또는 石油關係企業의 콤비에이트, 橋梁, 原子力發電所等과 같이 經濟發展에 따

한 比率을 再保險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危險에 對하여는 再保險이 前提가 되어 처음으로 元受契約의 引受가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地震이나 風水災等과 같이 한꺼번에 巨額의 損害를 입을 念慮가 있는 集積危險에 對하여는 再保險制度가 元受保險을 成立하기 위한 不可分의 前提條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再保險市場

再保險의 賣買行爲가 이루어 지는 곳을 再保險市場이라고 하며 그 當事者는 再保險을 出再하는 會社를 出再保險會社라 하고 受再하는 會社를 受再保險會社라 한다. 通常的으로 出再保險會社는 顧客으로부터 契約를 引受한 元受保險會社가 되지만 때로는 일단 引受한 再保險을 다시 再保險으로 出再하는(이것을 再再保險이라 한다)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受再保險會社는 同時에 出再保險會社도 될 수 있는 것이다.

受再保險會社라 함은 다른 元受保險會社로부터의 再保險을 引受한 元受保險會社와 元受業務는 一切 行하지 않고 再保險의 引受만을 專門으로 다루는 再保險專門會社가 있다. 우리나라의 再保險專門會社는 大韓再保險株式會社뿐이나 歐美地域에는 多數의 再保險專門會社가 있어 有力한 再保險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이와같이 再保險去來는 保險會社間에 去來가 이루어 지는 때에 그 特徵이 있다. 다음으로 再保險市場은 國內再保險市場과 海外再保險市場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金 權 直(業務部 次長)

相 談 코 너

保 險 相 談

라 企業規模가 大型化되고 技術革新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保險에서 負擔하는 危險도 巨額化 立體化되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危險에 關한 여러가지 保險을 合算한다면 一事故當 數百億圓에 達하는 損害날 可能性이 있으며 大規模의 保險會社라 하더라도 絕對로 한 會社만으로는 危險負擔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元受保險會社로서는 國內는 勿論 海外의 保險會社에도 相當